

울림과 잠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제 29 호 2022 년 5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3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의 울림

- 31 절: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God is glorified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하느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린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 35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ll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때는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34 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As I have loved you, so you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을 이기셨고,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계명인 사랑으로 투신해야 할 소명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이 소명은 자기 자신의 나쁜 성향들과 맞서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봉사하기 위한 노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내적 투쟁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온갖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나약한 본성에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비하나 교만과 욕욕, 시기와 나태, 혹은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안에서 회개하고 개선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 사도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그에게 만지도록 하시어 그가 보고 믿도록 하신 사랑 넘치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성사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굳건하게 뿌리내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고통 가운데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끝없이 이어갈 때 주님께서서는 사랑 가득한 목자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흠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들은 제 땅에서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명예를 부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 34, 15-16, 27)

넷째 주

5 월 22 일 부활 제 6 주일 ◆ 요한 14, 23 ~ 29

1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의 올림

- 27 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it to you.”)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시련과 고난을 견뎌 인내로 열매 맺으신 마음의 깊은 평화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깊은 내면의 평화를 체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28 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를 보낸 슬픔은 크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26 절: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that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 h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remind you of all that I told you.”)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삼스럽게 이 세 분 사이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정답게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평화,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평화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늘 평화스럽지 않고 산란하고 덜그럭덜그럭 시끄러운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한마음으로 합을 맞춰야 하는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졌기 때문이겠지요.

얼마 전에 남편과 크게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논쟁이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각자 자기주장을 우겨대느라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반박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이 늘 그렇게 번지듯,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어 서운했던 일, 당신은 늘 이런 식이라느니 하다가 서로의 성격적 결함까지 들추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 말이 아무리 맞는다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슴에서 땡땡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반박과 내 주장을 우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맞아. 그게 내 죄야.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거랑 같은 거야.”라고 말하고 나더니 대성통곡이 나왔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안아 주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미니, 화해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읽어주게 되었고 친절하고 이해해 주는 말과 말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웬지 손해 보고 지는 느낌이어서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고조되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종을 댕댕 쳐 주셔서 제 마음 안에 품고 있던 돌을 보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돌을 던지려고 쥐고 있는 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힘은 품어주고 감싸는 사랑이 아닌 미움과 폭력의 그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셔서 반목의 길에서 돌아서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그저 묻어둔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더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지금의 이 온화함과 평온함. 이 맛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성모님을 통해 시작한 신앙의 여정

권오숙 아네스

제가 5-6학년 다니던 무렵에 고색창연한 그리 크지 않은 읍 낮은 산 중턱의 약간 밑으로 새로 흰색 서양식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성당’이라고 했습니다. 기와집 초가집 들만 익숙한 저희에게는 그 건물이 참 신기해서 거기서 뭘 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길 가다가 멀리서 보이는 그 건물에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가끔 살짝 둘러보고 가곤 했는데, 학교의 예쁜 선배 언니들과 저희 학년에서 가장 예쁜 친구가 거기를 다닌다고 해서, 아 저기는 예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주눅이 들어 지레 포기하고 호기심이 발동하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서 그 건물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색색의 장미꽃 받이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높은 종탑이 있고, 다 좋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자갈밭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높은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아주 아름다운 분,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며 뭔가 들리지는 않지만, 웅얼 하는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해야 하는 곳에 와 있구나 함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가끔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며 뭔가 아주 조용한 소리로 웅얼거리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곤 하면서, 저녁식사 시간에 오면 사람이 거의 없고, 조용한 시간임을 알아내고서는 그 조용한 시간에 저도 그분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어둑해지면 발을 가로질러 숨차게 집에 뛰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물 뒤쪽에 있는 나지막한 작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책자들을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소리 맞춰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도 주일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늦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오른쪽 벽을 따라 조금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에 약간 둥근 공간에 아름다운 그분의 동상이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살짝 끼어 앉을 공간이 되었습니다. 약 3-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석 없이 그냥 맨 마룻바닥에 앉아있어도,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지... 매주 같은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그분 계시는 앞의 자리에 앉는 게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늦게 가니까, 모두 작은 책자 보면서 대답하고 노래도 해야 하니까, 다들 바빠서 아무도 저를 쳐다보는 눈길도 없어서 일부러 늦게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 앞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차츰 노랫소리가 귀에 익기 시작했을 때,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그 책자를 어깨너머로 살짝살짝 보곤 하면서 노래를 익혔습니다. '마리아 모후여,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 살베.' 이 성가가 성당에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이고, 살면서 잊지 않았고 걸핏하면 지금도 가끔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례를 서른 넘어 받은 저에게, 그때 학교 선배 언니들과 동급생 친구들이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일 예쁜 제 친구는 외국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께서 성당에 방문하러 오시면 으레 예쁜 한복을 입고, 꽃다발 드리고, 함께 사진 찍고 하던 모습에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녀님 눈에 띄어서 세례를 받도록 권유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매주 두 번씩 교리 공부를 하러 성당에 다녔는데, 무엇보다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성당에 와서 교리 실에 앉아있는 제가 신나고 좋았습니다.

저는 불교를 오래 신봉해온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절에 가서 절하고 4월 초파일엔 색깔 예쁜 종으로 만든 등을 들고 행진하던 일도 기억에 있고, 부모님들이 자주 전근 다녀야 하는 직장 때문에, 매번 함께 옮겨 다니기보다는 한곳에 있으면서, 먼 친척뻘 되는 분께 우리를 맡기고 처음에는 매월, 나중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주말에 하루 잠깐 다녀가시곤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아처럼 느껴지는 생활 속에 성장했습니다.

제가 성당에 다니는 것에 대해 저희 엄마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옛 말씀에 치중해서 엄마는 절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오시는 주말에 제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눈치채신 엄마에게 엄청 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맞으면서도 성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열망이 제 안에 딱 들어차 있어서 입으로는 하는 수없이 안 가겠다고 했지만, 미사 시작되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엄청 성당 가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끝날 무렵에 밖에 나가서 놀고 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나오면, 있는 힘을 다해 남의 발 두 덩이를 마구 가로질러 달려서 성당에 도착해서 미사 끝 무렵에 잠시 들어가 예전의 그 작은 공간에 앉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에도 못 나가게 하셔서 많이 슬펐습니다. 비록 교리 공부는 그만둬야 했지만, 삼종 기도 종소리가 들리면, 공부 시간이건, 어느 다른 곳에 있건 눈치채지 않게 숨어서 교리 시간을 통해서 배운 삼종 기도를 열심히 소리 내지 않고 바쳤습니다. 이렇게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제가 한 일은 성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찾아다녔는데, 성당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St. Joseph Catholic 성당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거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된 미사 책을 빌려서 영어 기도문을 쓰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와서 10년 넘도록 미국 성당에 다녔지만, 여전히 세례를 받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 마음속 깊이 남아서... 그러다가

한국 성당에 연락해서 신부님과 면담하면서 몇 개월 전에 태어난 딸아이 세례를 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세례를 주느냐고 신부님께 엄청 혼나 평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는 안 간다고 다짐했는데, 미국 성당에 새벽 미사를 다니면서 우연히 만난 저의 미래 대모님 덕분에 세례도 받기 전에 레지오 활동 및 성령 기도회, 성경 공부, 안수도 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새로 오신 신부님을 통해 저와 저희 딸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저희 딸이 6-7 살 무렵부터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불티나게 번지고 있을 때, 어느 성당에 가도 미국의 열심한 신자분들께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담은 CD 를 무료로 나눠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신자들이 메주고리에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는 내용들 및 유명한 신부님들께서 성모님 발현 관련한 많은 체험담과 가르침을 담은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CD 를 들곤 하였는데, 어느 날 성모님 발현을 보는 6 명 아이들 이야기가 담긴 CD 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중에 아이들이 어디에 있건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이 되면 돌이 많은 산 중턱에서 부르시는 성모님께 가기 위해 맨발로 재빠르게 달려가는데, 크고 작은 돌들이 깔린 돌산에서 뽀족한 돌들에 발을 다치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모님 얼굴만 보고 달려갔다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큰 감동이 와서 밥이 목에 걸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면, 성모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안일하게 저녁 만들어서 먹으면서, 재미있는 먼 나라 이야기 듣듯이 듣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밥을 먹다 말고 평평 울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 2 단계의 신앙 성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이 ‘성모님 발현’ 관련 체험한 사람들이 매년 주최하는 온갓 conference 에 어린 딸을 데리고 함께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과 저는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붙어 다녔고, 교리 면에서는 제 어린 딸이 저보다 더 잘 알아듣고 저에게 설명까지 해 주어 딸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다 은총이죠. 이런 conference 에 참석하면서 많은 치유와 위로와 진실된 신앙인이 살아야 할 가르침의 은총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 주시듯이 성모님 이야기 들으러 다니면, 늘 은총을 풍성히 챙겨 주셨습니다. 매일 미사, 잦은 고백성사, 봉사 및 신앙(교리/성경) 공부, 그때의 제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끼니 거르고, 잠도 별로 안 자고 해도 지치지 않고 일하면서 뛰어다닐 힘을 얻었습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오래 생활하다가 직장 일정과 또 제가 맡아서 하던 봉사 시간과 회합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좀 쉬게 되었는데,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 다시 성모님의 은총 속에 어우러지고 그분 사랑 속에 묻혀서 살게 될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쉼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은총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저를 성당으로 끌어 주시고 키워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많은 신앙 체험을 통해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다주신 영적 체험은 성모님께서 또 성모님의 정배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총임을 알고 늘 감사하고 성모님께 매일같이 저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1 장, 25 절의 말씀 :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처럼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은총은 책으로 몇 백 권을 써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TR3:**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갑시다.
- **TR4:** 안유민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김성년 형제님의 5월 아기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원들이 온 마음을 모아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기도 드립니다.
- **RC4:** 행복한 5월을 맞이합시다!
- **WBL:** 항상 어우러져 살며, 삶의 기쁨을 느끼고 반 모임에 함께함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 **NV3:** "축하합니다!" 4월 24일에 본당에서 세례 받으신 이승만 요셉 형제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반원분들이 함께 기도 드립니다.

실천사항

1.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맞아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2.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 드리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